

저는 10년 동안 음악을 전공으로 하여 항상 저만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노래를 만들고 연주하고자 했습니다. 그래서 작곡 프로그램과 음향 공부, 영상 제작 프로그램 등을 공부하며 유튜브를 통해 선보였습니다.

그러면서 더 좋은 퀄리티로 선보이고 싶은 마음에 공부를 하다 보니 알게 된 AI 시스템 즉 인공지능 믹스 & 마스터링입니다.

버튼 하나면 상업 음원 수준으로 만들어 주는 다양한 시스템을 사용하다 보니 점점 매력을 느끼게 되었고 그렇게 AI 시스템에 대해 이해하려다 보니 어느새 파이썬을 공부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.

프로그램 언어를 공부하고 더 넓은 시각을 위해 매일 뉴스 기사들을 찾아보니 메타버스, 가상 뮤지션, XR 등 제가 알지 못했던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고 가까운 미래에는 어떤 세상을 맞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저의 꿈은 인공지능과 메타버스에 관련한 개발자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.